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1일 21시 45분



목차

| | |
|--------------------------------|---|
| 목차 | 2 |
| 여수한뉴스 - 전체 | 3 |
|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잔결음 | 3 |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2023.12.06 조회수 209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담당자 김경태 연락처 061-659-3628

전남도와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추진...5일 전문가 자문위 회의 열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석유화학산업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을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조성키 위해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등을 활용하거나 효소,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 물질을 만드는 산업으로 바이오 화학산업으로도 불린다.

생산과정에 석유나 석탄이 사용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 자연에서의 분해도 빨라 탄소 중립적이고 친환경적이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을 대체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그간 우리나라 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2050 탄소중립 의무 부담에 따른 글로벌 무역파고,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전남도와 함께 여수국가산단을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조성을 계획, 지난 10월부터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와 특화단지 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관련 산업분야의 수요와 공급 기업을 집적화해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과 실증 및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며 산업생태계를 완성하는 개념의 특화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화이트바이오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일에는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에서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 내 산업부의 특구 신청을 목표로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가진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을 살려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선 순환해 기업들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율주행 분야에 10개 특화단지가 지정됐으며, 바이오 분야는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의료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된 바 있으나 화이트바이오 특화단지 추진은 전남이 최초다.





| | |
|--|---|
| <p>첨부파일</p> <p>전체(Zip)다운로드</p> | <p> 4-1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랜걸음.jpg (162 hit/ 269.2 KB) ↓</p> <p>미리보기</p> <p> 4-2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랜걸음.jpg (163 hit/ 310.0 KB) ↓</p> <p>미리보기</p> |
|--|---|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여수시